

北京學의 시각에서 본 조선 후기 燕行錄 II *

- 日記를 중심으로 -

정 훈 식**

국문초록

이 글은 일기 양식으로 기록된 조선 후기 연행록을 통해 북경학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후기 연행록에서 주된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일기는 일정이 대체로 비슷하여 노정과 체류 기간이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일기는 시대 상황, 저자의 목적의식, 인식방법과 태도 등에 따라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띤다. 특히 저자가 북경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북경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수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北京 概述은 저마다 북경에 대한 지식수준과 북경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어, 북경을 學知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대로 갈수록 북경을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그 과정에서 유람, 탐문, 전적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이 점에 근거할 때 일기체 연행록은 북경학의 시각과 방법을 잘 보여주는 북경학의 보고서라고 이를 만하다.

[주제어] 연행록, 일기, 북경, 북경학, 유람, 탐문

목 차

- | | |
|----------------------|----------------|
| I. 北京學의 보고서, 日記體 연행록 | III. 北京 이해의 방법 |
| II. 學知의 대상, 北京 | IV. 마무리 |

I. 北京學의 보고서, 日記體 연행록

이 글은 일기로 기록된 조선 후기 연행록을 통해 북경학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 후기 연행록에는 북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지역의 지식을 심화, 확장해가는 모습이 잘 담겨있다고 보고 이를 잠정적으로 '북경학'이라 칭하여, 이 움직임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4915)

**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jungghs21@ulsan.ac.kr

연행록 소재 필기잡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필기잡록의 시대별 기술의 범위와 체계, 내용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지식의 범위가 확대되고 체계가 정돈되며 내용이 심화했음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공정한 북경 인식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¹⁾ 여기서는 북경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주목해서 살피되, 일기체 연행록이 북경을 알아가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보고서 혹은 노트임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 조선 후기 북경학의 성립을 주도한 주체의 시각과 그들이 주로 모색한 방법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일기체 연행록에서 북경학이 성립되는 과정의 일단을 재구해 볼 것이다.²⁾

그간 연행록 연구에서 중국 혹은 북경 인식과 북경에 관한 지식 정보의 생산과 축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 이들 연구는 연행록의 學知적 성격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미 충분히 논의된 부분을 수용하고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시각에서 연행록 텍스트를 북경학이 성립하는 주요 현장으로 보고 논의코자 한다.⁴⁾

연행록의 다양한 양식 가운데 일기는 일반적인 양식이다. 일기는 여정에 오른 저자의 사적 기록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자가 사행에 임하는 태도나 여행의 목적과 그 행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혹 사행에서 중국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려고 했다면, 이는 단순한 여행일기가 아니라 일종의 관찰기록의 성격이 두드러질 것이다. 물론 일기는 유람을 위한 시간 등 제반 조건의 제약이 있고 유람 장소에 한계가 있어 필기잡록에 비해 서술의 범위가 좁지만, 북경을 알아가고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연행록의 분량과 무관하게 대개 대동소이한 노정과 일정은 보이지만, 동일 대상에 대하여 직접 견문하고 서술한 내용이 저자의 시각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일기의 특징이다. 무엇보다 생생한 묘사와 감정이 인식 논리와 어우러져, 북경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다수 전한다. 주로 장편인 이들 기록은 북경학 텍스트라는 시각에서 볼 때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이 있는데, 저자가 북경을 學知의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드러나거나, 북경을 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혹은 북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잘 드러나 있는 작

- 1) 정훈식, 「北京學의 시각에서 본 조선 후기 燕行錄 I - 筆記雜錄의 시기별 고찰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 64, 한국고전번역원, 2023. '북경학'은 이 글의 서두에 기술하였듯이, 북경이라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하는 연구에서의 주안점은 중국 밖에서도 북경학의 성립 주체와 문헌을 찾을 수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는 데 있다.
- 2) 이 글에서 일기 양식으로 기록된 연행록이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를 쓸 때, 문맥에 따라 '일기'와 '일기체 연행록'을 병용한다.
- 3) 최소자, 「18세기 후반 연행록을 통해 본 조선지식인들의 대중국인식」, 『국사관논총』 76, 국사편찬위원회, 1997; 원재연, 「17~19세기 연행사의 활동공간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2009; 최식, 「텍스트로 바라본 燕行과 燕行錄: 燕行의 體驗과 享有」, 『대동문화연구』 8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진재교, 「燕行錄과 知識·情報: 지식·정보의 수집과 기록방식」, 『대동문화연구』 9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김영죽, 「연행 體驗 기록의 慣行과 그 매커니즘」, 『한문고전연구』 3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최식, 「연행 지식·정보의 수집·정리 및 확대·재생산: 연행록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화회, 2018; 임영길, 「18~19세기 조선 문인들의 北京 인식과 기록 양상: 탐방 공간의 확장과 관련하여」, 『동양한문학연구』 54, 동양한문화회, 2019.
- 4)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의 유용강 선생이 연행록이 중국학의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시론적 견해를 제출한 바 있다. 필자는 선생의 논의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연행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되, 다만 범위를 북경에 한정하고자 한다. 劉勇強, 「연행록과 중국학 연구」, 『한국문학연구』 2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87~122쪽.

품들이다. 무엇보다 이들 기록에는 북경을 이해하고 기록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혹은 은연중 드러나 있다.

간략한 일기도 북경학 노트와 같은 면모를 띤 텍스트가 많다. 매일의 기록에 유람 장소와 체험 등을 짧게 기록하고, 상세한 기록은 별도의 양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있는데, 韓弼教(1807~1878)의 『隨樣錄』이 대표적이다.

내가 집을 떠난 이래로 보고 들은 바를 곧 적어놓았으니, 江山의 名勝과 封疆의 險峻, 城池의 창건, 中水 등의 興廢, 樓觀의 間架와 階級, 그리고 碑牌의 새김이나 扁榜의 文句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실어놓고 갖추어 적어놓지 않은 것이 없었다.⁵⁾

이 대목은 일기가 북경학(중국학)의 노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 사례이다. 『수사록』은 전체 6권 가운데 1권의 「일월기략」이 일기다. 그 외에 필기잡록과 필담기록이 있다. 일기와 잡기, 필담은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⁶⁾ 일기는 비교적 간략하고 필기잡록과 필담이 매우 자세하다. 물론 필기잡록과 필담으로 옮겨서 그럴 것이라고 보이지만, 만약 마부의 실수로 초고를 태우지 않았다면 일기도 매우 방대하고 자세한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일기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북경학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텍스트 역시 다수다. 이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II. 學知의 대상, 北京

중화의 황성에 滿이 들어서자, 북경을 보는 시각에 변수가 생겼다. 조선의 조야는 이제 북경이 오랑캐의 수도가 되었다고 간주하였고, 이것이 조선 후기 북경을 보는 지배적 시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청이 지배하는 북경은 어떤 모습인지 관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청교체기의 상흔을 지우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북경을 목격하며 공고한 시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틈으로 갖가지 관점과 다양한 논의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북경이 더는 중화의 황성이 아니라는 시각에 맞서는 견해가 서서히 대두하였다.⁷⁾ 동시에 북경에 대한 인식은 쟁점이 형성되어 북경학의 성립에 주요 동력이 되었으며, 성세기에 접

5) 韓弼教, 『隨樣錄』 권1, 「日月紀略」, 1831년 11월 23일(김현미·조창록 옮김, 『수사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103~104쪽), “余自離家以來, 輒記其所聞見, 凡江山之名勝, 封疆之沿革, 城池之勦修興廢, 樓觀之間架階級, 至若碑牌之刻, 扁榜之題, 無不該載而備錄.”

6) 이를테면 「일월기략」 9월 21일 기록에는 영통교를 건너고 대왕장에서 점심을 먹고 동악묘를 보았으며 옥하관에 들어갔다고 짧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상수필」 하권에는 통주, 대왕장, 동악묘, 옥하관이란 제목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일기체는 간략하게 유람장소와 행적만 적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필담과 잡기에 수록하려는 의도의 소산이다.

7) 이와 유사한 논리를 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호윤, 「18세기 조선의 청조인식 - 『노가재연행일기』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동아대 석당학술연구원, 2018.

어든 북경은 그 실체를 재인식해야 할 텍스트로 부상하였다.

청 입관 후 처음 간 사행이 1645년 5월 21일에 북경에 도착했으나, 9일 뒤인 29일에 서둘러 귀로에 올랐다. 체류 4일째인 24일 소헌세자가 흥서했다는 급보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관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할 막중한 소임이 부여된 행차였을 뿐 아니라 급변사태로 경황이 없는 처지에서 북경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다만 서장관 成以性(1595~1664)의 『燕行日記』에는 통주에서 북경에 들어갈 때 여항에 산재한 분묘를 보고 그 제도를 기록한 내용, 장안가에 나가보니 비록 병화는 면했으나 전쟁 직후라 물자가 거의 없고 만인이 한인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내용, 그리고 귀로에 오를 때 길옆에 말뚝 चु는 사람 등이 짝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⁸⁾ 이 내용은 후대에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이다.

10여 년 뒤 麟坪大君(1623~1658)이 『燕途紀行』에서 북경을 개관한 대목은⁹⁾ 청입관 이후 일기에서 북경을 概述한 최초의 기록이다. 비록 소략하나 북경에 관한 지식의 수준과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학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구체적인 징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경을 알기 위해 탐문하고 직접 유람했다는 언급이다. 인평대군은 수차례 북경을 들어 왔으나,¹⁰⁾ 공적인 업무 외에 유람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북경을 알기 위해 탐문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였는데, 성의 규모와 성문 이름을 탐문하여 기록하고, 또한 직접 가본 천단의 크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에 북경의 역사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다만 청 입관 후 북경의 모습을 고찰한 흔적은 찾기 힘들고, 대신 中華의 皇都라는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

이후 일기에도 북경을 概述한 기록이 많다. 대개는 북경 도착 당일, 혹은 며칠 뒤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 姜浩溥(1690~1778)의 『상봉록』(1727.12.28), 尹汲(1697~1770)의 『燕行日記』(1746.12.28), 朴趾源(1737~1805)의 『熱河日記』(1780.8.1), 盧以漸(1720~1788)의 『隨槎錄』(1780.8.6), 金景善(1788~1853)의 『燕轅直指』(1832.12.19), 金直淵(1811~1884)의 『燕槎日錄』(1858.12.25) 등을 언급할만하다. 여기에는 북경에 머물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우선 이곳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의도가 도드라지지만, 북경에 대한 시각도 담겨있다. 강호보는 조양문 앞에 서서 “편방의 작은 눈구멍이 황홀하여 혼백이 현란하고 정신이 흐린 듯하니, 비하건대 가난한 거지가 나와 아욱국만 먹다가 하루아침에 부귀한 사람이 보배로운 차반을 큰 상에 차려 놓은 것을 보면 놀라서 수저를 잃어버리고 무슨 음식인지를 모르는 양 같았다.”¹¹⁾고 하며 변화한

8) 成以性, 『溪西先生逸稿』卷之一, 『燕行日記』, 5월 21일, 한국고전번역원DB, “午時到北京, 城東朝陽門外, 明朝卿相之墓, 混雜於閭巷之間. 塚上棟宇, 盡爲灰燼, 只有石羊石馬, 對立於碑石之前. 大槩華俗雖有好山水, 必葬於平原曠野之中, 至於江干海際, 皆不避, 而庶人則不起墳, 但於墓上聚石爲小邱表之而已.”; 5월 22일, “出長安之街, 夾路市肆, 得免兵火, 而物貨都無所列, 惟餅食梨杏菜物而已. 家家置清人男女, 使察漢人, 清人使漢人如奴隸焉.”; 5월 29일, “風霾竟日, 咫尺不分, 但見持箒者列立路側, 征馬若遺糞則爭先掃取, 納於簣子而走. 蓋將用以糞田, 亦輒以代糞云.”

9) 『연도기행』 下, 『日錄』, 1656년 10월 20일, 한국고전번역원DB, “探問燕京周遭皇城, 每一面廣十里, 總計四十里. 南有三座門, 當中曰正陽, 東曰崇文, 一號海岱, 西曰宣武. 東有二門, 北曰東直, 南曰朝陽, 一號齊華. 北有二門, 東曰安定, 西曰德勝. 西有二門, 北曰西直, 南曰阜成, 總合九門. 城南又置羅城, 東西制與體城無差, 南北八里, 總計亦二十餘里. 南有三門, 東西各置二門, 總合七門, 門號未詳. 癸巳, 往賞天壇, 壇在正陽門外八里, 周回又將七八里矣. 燕京, 順天府, 金·元爲都. 明初置北平布政司, 永樂徙都焉.”

10) 인평대군은 11차례 사행을 모두 정사로 북경에 다녀왔다.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의 정치외교적 의미-인평대군의 사행을 중심으로-」, 『은지논총』 42, 은지학회, 2015, 86~101쪽 참조.

11) 강호보, 『상봉록』, 1727년 12월 28일, 『연행록선집 보유편』 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135쪽(강호훈 역, 『1727

북경에 놀라면서 역사와 지리형세, 풍속 등을 사뭇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나, 晉 懷帝(284~313)부터 북경이 오랑캐 땅이 되어 명대의 풍속이 오랑캐에게서 묻은 것이 많다고 하였다.¹²⁾ 윤급 또한 북경의 규모에 주목하면서도 “이 천연의 요새를 오랑캐가 천하를 차지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하였다.¹³⁾ 오늘날 심리학 용어로 인지부조화 같은 인식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이 초기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안정을 되찾고 성세를 누릴수록 이러한 현상은 확대되었다. 노이점의 『수사록』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기를, 천하의 風水家 徐善述이 북경의 지세를 높이 평한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직접 와서 보니 북경은 변방과 거리가 100리가 채 안 된 곳에 있어 오랑캐에게 이로우 뿐이라고 토를 달았다.¹⁴⁾ 반면 함께 사행에 참여한 박지원은 다른 관점에서 북경을 개관하면서, “오랑캐 출신으로 중국의 주인이 된 자들도 성인의 도를 물려받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임금이 없었다.”고 전제를 달았다.¹⁵⁾ 김정선은 북경에 도착한 날에 『北京全圖』를 첨부하여 ‘북경풍수’, ‘북경연혁’, ‘성궐위치’, ‘오성가방위치’, ‘팔기위치’, ‘연경팔경’으로 항목을 나누어 북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자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¹⁶⁾ 화이론에 의거하지 않고 청의 수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핵심적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김직연도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북경을 서술하였는데, 도착한 날 일기 뒤에 첨부한 ‘按’에서 문헌을 참고하여 북경의 역사와 지리, 공간구조와 건물 등을 조리 있게 기록하고, 마지막에 정리한 배경을 밝히면서 산해관 안팎의 행정구역의 조밀함이 다름을 밝혔다.¹⁷⁾

이 같은 기록은 저자들이 연행에 앞서 북경을 미리 학습하고 이곳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갖춘 뒤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또 기록을 견주어보면 내용과 시각에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경이 오랑캐의 지배에 놓여 중화 문명이 소멸했다고 생각했다면 북경은 오랑캐의 땅으로 변한 것이며, 오랑캐도 중화의 문명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면 북경을 여전히 중화의 황성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 사이 북경의 번성함에 주목하면서도 오랑캐가 북경을 증원을 지배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하는 등의 사뭇 동요하는 관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 북경에 관한 시각은 화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립적 시각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자세히 살피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심층적으로 탐문하며 북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심화 발전하였다. 요컨대 북경을 간략하게 서술한 대목에서도 이곳을 알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부연사행에 참여하여 기록을 남긴 이들은 편차는 있지만 대개 북경을 알고자 하는 의도를 품었다. 다만 대다수의 연행록에는 이점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18세기 중반부터 몇몇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확인되는데, 우선 홍대용(1731~1783)의 『을병연행록』이 대표적이다. 홍대용은 자신이 중국에 가는 목적을 서두에 분명히 밝혔는데, 이 대목은 사뭇 조선에서 청과 북경을 바라보는 논쟁적 시각과 관련 있

년 사양재 강호보의 상복록』 보고서, 2020, 191쪽).

12) 강호보, 『상복록』, 앞의 책, 138~170쪽(강호흔 역, 앞의 책, 194~224쪽).

13) 윤급, 신로사 옮김, 『윤급연행일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117~119쪽.

14) 노이점, 김동석 옮김, 『수사록』, 성균관대출판부, 2015, 244~245쪽.

15) 박지원,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1, 『관내정사』, 돌베개, 2017, 454~461쪽.

16) 金景善, 『燕轅直指』, 1832년 12월 19일, 한국고전번역원DB.

17) 김직연, 신익철 옮김, 『연사일록』, 의왕향토사료관, 2011, 101~111쪽.

다.¹⁸⁾ 조선의 조야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반청적 태도에 홍대용은 반기를 들고 청이 오랑캐라고 더럽게 여기는 시각을 편벽되다고 비판하며 큰 도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보고, 청인을 만나야 한다는 논리를 펴낸다. 나아가 북경을 새롭게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을병연행록』에는 그 방법적 모색이 매우 다채롭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장편 연행록은 북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청 사상을 드러내는 노이점도 북경을 중화 문명의 진수라고 하며 이곳에서 문명의 진수를 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¹⁹⁾

19세기에 들어서서 金善民(1772~1813)의 『觀燕錄』(1804)에 序前을 쓴 아우 金善臣²⁰⁾(1775~?)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특유의 논리를 폈다.²¹⁾ 그가 제시한 이른바 물관과 지관은 등급이 있는 관찰법이다.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것을 물관이라 하였으나 덧붙이면 사물의 외관만을 보거나 혹은 硯의 관점에서 물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관은 사물에 내재한 사상적 배경 혹은 구조적 관계나 문명의 근간이 되는 정신문명 등에 주목하며 보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김선신은 물관보다 높은 단계의 관찰법인 지관으로 중국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북경에서 청의 문물을 외관만 보지 말고 그에 내재한 사상, 문명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달리 말하면 오랑캐의 문물에서도 중화 문명이 내재해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점은 전대 연행록에서 시도했던 방법으로, 대상에 내재해 있는 속성과 구조적 관계를 통해 문명적 의미까지 읽어내려는 노력은 주로 박지원, 박제가 등의 북학파들이 중시했던 방법이다.²²⁾ 김선신은 이를 智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李有駿(1801~1867)은 『夢遊燕行錄』(1848) 「자서」에서 “대개 연경은 천하의 북쪽 한 귀퉁이이다. 사람들이 이른바 壯遊라고 말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좁은 안목에서 말하는 것일 뿐, 남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기에는 진실로 부족하다.”라고 하며, 북경 유람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²³⁾ 이 언급은 뿌리 깊은 배척사상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태평천국의 난과 아편전쟁 등으로 위축된 청의 처지에 주목하고

18) 홍대용, 정훈식 옮김, 『주해 을병연행록』 1, 경진출판, 2020, 24쪽, “문물이 비록 다르나 산천은 의구하고, 의관이 비록 변하나 인물은 고급이 없으니, 어찌 한번 몸을 일으켜 천하의 큰을 보고 천하의 선비를 만나 천하의 일을 의논할 뜻이 없겠는가? 또 제 비록 더러운 오랑캐이나 중국을 차지하여 100여 년 태평을 누리니, 그 규모와 기상이 어찌 한 번 보았지 않겠는가. 만일 오랑캐의 땅은 군자가 밟을 바가 아니요, 오랑캐 옷을 입은 인물과는 족히 더불어 말을 못하리라 하면 이것은 편벽한 소견이요, 어진 자의 마음이 아니다.”

19) 盧以漸, 『隨槎錄』, 與博詹事書(김동식 옮김, 앞의 책, 442쪽), “土之生於偏邦者, 一見中華, 願也. 然唯夫心於山川之雄之奇, 邑里繁華, 京都之壯麗, 而曰: ‘獲我願也’, 亦未矣. 何異於遊藍田之山者, 祇見其山之勝, 而不知其采玉也耶. 中華固土君子之藍田, 而京師又藍田之最種玉處也.”

20) 김선신은 비록 저자는 아니나 중국과 일본 사행에 모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이때 만난 중국과 일본 문인들과도 교류하며 두 나라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기여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신로사, 「金善臣의 生涯와 그의 著作에 관한 一考」,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화회, 2008, 129~155쪽 참조.

21) 金善民, 『觀燕錄』 卷首序, 序前(박은정·이홍식 옮김, 『관연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33쪽), “擧天下之物, 而同將眼觀. 然以眼觀者, 以物較物或引之, 是謂物觀. 以智觀者, 物天下之物, 而不物天下之物. 故能勝物而不窮, 受物而不傷, 是謂智觀. 百官以此相治, 列士以此自治, 以此治身彭祖老聃之爲也. 以此治民堯舜湯文周公所有之法則也.”

22) 중국과 북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방법론적 차원에서 매우 심도있는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는데, 박지원의 『審勢編』, 박사호의 『靑國』 등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李有駿, 『夢遊燕行錄』上, 自序, 한국고전번역원DB, “夫燕天下之北一隅也. 人所稱壯遊者, 特以吾東人小眼孔言之耳, 固不足誇美於人.”

북경의 지정학적 위상을 재조명한 뒤 북경여행에 큰 의미를 두던 이전 시기와 달리 그 의미를 다소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金直淵도 『연사일록』(1858)에서 출발 당일 북경에 가는 의미와 소회를 기록했는데, 18세기 북경을 바라 보는 시각과 사뭇 차이를 드러낸다. 상념에 가까운 내용의 요지는 북경이 천하의 중심지가 아니라 북쪽 변두리에 있는 모퉁이이며, 오랑캐가 도읍하여 풍속이 옛날의 의관과 문물이 아니라고 하여, 반청적 태도에 닿아 있다.²⁴⁾ 이외에도 19세기 연행록에 유사한 생각을 표출한 기록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쇠퇴기에 들어선 청의 정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상 북경에 가기 전에 그 의도와 마음가짐 등을 표출한 몇몇 대목을 보더라도 북경을 학지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Ⅲ. 北京 이해의 방법

북경을 알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행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서 북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앞서 인평대군이 북경을 개관할 때 말했던 ‘유람’과 ‘탐문’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삼았다.²⁵⁾

1. 유람

북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방법은 직접 가서 보고 살피는 일이다. 17세기에는 이러한 일이 여의치 않아 북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텍스트가 저술되기 힘들었다. 그런데 金昌業(1658~1722)의 『燕行日記』는 이전의 연행록과 완전히 다르다. 우선 자제군관이라는 신분으로 자유롭게 유람을 하면서 유람을 답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소와 건물 등의 형태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이를 기록하였다. 그 이전에는 공식 행사 참여차 들어가는 자금성 외 유람의 장소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역관 吳志恒이 책 한 권을 얻어 왔는데, 이름은 『大興縣志』였다. 대개 북경 성안에 2현이 있는데, 동쪽은 대흥, 서쪽은 宛平이다. 북경성 동쪽에 있는 안팎 궁궐, 祠壇, 촌방, 산천, 인물, 풍속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花果, 禽獸들도 모두 적혀 있었다. 이러한 책을 얻으니, 더욱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²⁶⁾

24) 김직연, 『연사일록』, 1858년 10월 26일(앞의 책, 4~5쪽). 그럼에도 김직연의 연행록은 전반적으로 매우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하고자 했으며 그 기록의 수준도 매우 탁월하다.

25) 유람의 범주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 의한 견문, 미시적 관찰도 포함한다. 탐문의 범주에는 간단한 문답 외에 필담을 통한 교유의 장에서 이루어진 토론도 포함한다. 물론 여기서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들은 모두 일기체 연행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의 북경 지방지와 북경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저서를 참조하고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대목은 애초 유람할 뜻을 품고 북경에 들어왔는데 『대흥현지』, 『완평현지』와 같은 북경 지방지를 접하면서 그 욕구가 더 강렬해졌음을 직접 드러낸 말이다. 청대 초기 17세기 연행록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을 김창업의 연행에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렇게 해서 김창업은 1713년 1월 8일부터 유람을 다니기 시작한다. 막고 있는 갑군에게 물을 길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따라가는 갑군을 회유하여 유람할 곳을 안내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북경에 머무는 동안 열 차례 남짓 유람하는데 아래와 같다.²⁷⁾

12.27.	북경 도착	01.26.	태액지 오룡정 만세산
01.01.	자금성(조참)	02.01.	약양묘 범장사탑(부감)
01.08.	옥하교 삼층사 승문문	02.03.	이원영집 포자하 황성위 마유병집
01.10.	동안문 마시 사패루가	02.4~6.	창춘원 서원
01.19.	정양문 대흥교 천단 선농단 황성(부감) 두로궁 유리창	02.09.	자금성 태화전 문연각 체인각(방물) 대광명전 천주대
01.24.	승문문 관계묘 약양묘 천경관 금어지	02.13.	태학 순천부학 문승상사당 유람 석고
01.25.	창춘원 덕승문 서지문	02.15.	북경 출발

김창업이 직접 가서 본 장소는 이전 사행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곳이 많았으나,²⁸⁾ 『대흥현지』와 『완평현지』, 『일통지』와 같은 북경 지방지나 전적을 참고하여 유람지를 정하고 장소 폭넓게 이해하였다. 『연행일기』는 이후 사행에 유람의 방향을 제시하며 19세기까지 주요 연행록의 저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²⁹⁾ 달리 말해 북경학의 형성에 『연행일기』가 중요한 방법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뒤 李器之(1690~1722)의 『一菴燕記』도 김창업의 뒤를 이어 적극적인 유람을 시도한다. 특히 여기지는 북경의 전체 규모와 형세를 살피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俯瞰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³⁰⁾ 김창업도 부감을 한 바 있지만, 여기지는 더 적극적이었다. 여기지가 올라가 북경을 내려다본 곳은 범장사(9.24), 보국사 비로각(10.5), 북해 백담(10.8), 그리고 정양문 성 위(10.11) 등이다. 먼저 성 남쪽 범장사에 올라 북쪽으로 보며 자금성과 서북쪽에 있는 경도를 보았다. 그 뒤 성 서남쪽에 위치한 보국사에 가서 지금

26) 김창업, 『연행일기』, 한국고전번역원DB, 1713년 1월 6일, “譯官吳志恒得來一書, 名大興縣志. 蓋北京城內有二縣, 東曰大興, 西曰宛平. 北京城東邊內外宮闕·祠壇·村坊·山川·人物·風俗, 靡不記載, 其土產花果·禽獸, 亦皆見錄. 得此書, 益生出外之心矣.”

27) 앞의 책, 2월 11일, “余前後出館門者十三次, 內城九門, 出入共八, 而朝陽·崇文·正陽·西直·德勝出入者, 或三或四.”

28) 물론 자금성, 국자감, 천단, 백담 등은 이미 명대에도 조선 사행이 유람하던 곳이다. 구도영, 「조선전기 대명 사신의 북경 관광지와 관광 소회」,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157~193쪽. 여기에 새로 청대에 조성되거나, 확장 개건한 곳을 더해 유람 장소가 늘어난다.

29) 김태준,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 『국제한국학연구』 1,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93~115쪽; 정혜중,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北京見聞 - 김창업의 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33~65쪽.

30) 이미 여기지가 실학적 태도로 조감하였다고 언급한 연구가 있다. 김동건, 「여기지의 일암연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07, 30~31쪽.

은 사라지고 없는 비로각에 올라 북경을 내려 보았다.

비로각의 높이는 6장 남짓이며 사방으로 빗마루를 만들고 난간을 둘렀다.……난간 위로 나왔으나 위험하여 가장자리로 다가서지 못하고 앞쪽 빗마루를 따라 누각 둘레를 한바퀴 돌았는데 북경성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동서남북으로 수십 리 안에 있는 산천·궁궐·성가퀴·문루·인가·불탑·수목·도로 등이 모두 눈 아래에 들어오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북경의 형세를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누각에 올라야 할 것이다. 『완평현지』에서 이르기를, “행인과 수레와 말의 크기가 한 치 남짓으로 보이는데, 푸른 들판과 도성의 큰길 사이로 전혀 끊이지 않고 오가는 모습이 참으로 큰 볼거리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었다.³¹⁾

일암이 비로각에 올라 사방으로 둘러보며 탁 트인 북경 지세와 규모를 살펴본 뒤, 미리 읽은 전적과 그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북경의 형세를 보고자 하면 마땅히 이 누각에 올라야 한다’고 하며 俯瞰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다음 북해에 있는 백담에 올라 궁궐 안을 살펴보고는 ‘북경성에서 가장 기이하고 장엄한 볼거리로 이 탐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하였다.³²⁾ 이는 17세기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록으로, 눈앞에 펼쳐진 북경의 형세와 규모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俯瞰은 『일암연기』를 기점으로 북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기지는 또 북경의 골목인 衚衕을 돌아다니며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 또한 실핏줄 같이 이어진 실제 북경인의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또한 북경의 규모를 살피기 위해 부감과 후통 유람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북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후 연행록은 사방으로 원심력이 작용하듯 유람 공간이 확장되는데,³³⁾ 『무오연행록』에는 자금성의 핵심 영역이자 금지된 영역을 들어가서 남긴 특별한 기록이 있다. 1799년 정월 초사흘, 서유문(1762~1822)이 서장관으로 참여한 사행이 북경에 머물 때 제위를 가경에게 물려주고 태상황으로 있던 건륭제의 상을 당하여 이후 조선 사신도 매일 곡반을 하러 자금성에 들어갔다. 이때 들어간 곳은 자금성 태화전 외에 자금성 북쪽의 황극전과 건청궁 등 황족의 거주공간인 내정에 해당하는 장소다. 서유문은 이곳에 들어가 보고 들은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청 황실의 상사를 계기로 이곳까지 들어가 남긴 기록은 『무오연행록』이 지닌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다.³⁴⁾ 건륭 붕어 전후의 자금성 내외 상황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화신과 관련된 기록도 매우 자세하다. 이렇듯 유람은 북경이라는 장소를 이해하고 그 규모를 알아가는 데 기본적인 방법이었다.³⁵⁾

31) 李器之, 『一菴燕記』 권3, 1720년 10월 5일(조용희·신익철·부유섭 옮김, 『일암연기』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289쪽), “閣高六丈餘, 四面作退, 遍以欄干。……出欄干上, 危不可近邊, 從前退, 遍閣一周, 北京城內外, 無一不見, 東西南北數十里中, 山川·宮闕·城堞·門樓·人家·佛塔·樹木·道路, 盡入眼下, 誠壯觀也。欲見北京形勢, 當上此閣矣。『宛平縣志』謂, ‘行人與馬, 大可寸餘, 往來綠野紫陌間, 終無間斷, 真大觀哉!’ 其言不虛矣。”

32) 앞의 책, 10월 8일, “北京城第一奇壯之觀, 無逾此塔者矣。”

33) 주요 유람처가 확대되는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잘 정리되었다. 임영길, 앞의 논문 참조.

34) 서유문, 조규익 외 주해, 『무오연행록』, 박이정, 2002, 170~172쪽.

북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적 방향 가운데 미시적 관찰도 주목할 만하다. 문헌을 참조하며 북경의 대표적인 장소를 유람하고 그 규모와 번성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북경이 오랑개의 도성일 뿐이라는 관점을 재고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확대되었다면, 북경인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세계를 관찰하려는 시도는 화이론이라는 거대담론 대신 또 다른 방식으로 북경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대두되었음을 보여준다. 북경인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기록은 이미 김창업의 『연행일기』에서부터 보이는데,³⁵⁾ 후대 기록에서는 任百淵(1802~1866)의 『鏡語遊燕日錄』이 주목된다. 북경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두루 다니며 인사하는 풍습을 보고 어느 연행록보다 자세하게 기록하였다.³⁷⁾ 이튿날 숙소에 찾아온 여러 장사꾼과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흥정하는 장면도 생생하다. 또 1월 9일 흥인사에서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오체투지로 예배하는 장면, 20일 동래국이라는 숙박음식점에 가서 식당이 돌아가는 법과 음식이 나오는 과정들을 자세히 관찰한 기록, 금어지 근처의 養漢의³⁸⁾이 있는 창춘에 가서 자세히 관찰한 기록 등은 모두 북경의 생활세계를 향한 관심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기록한 것들이다.³⁹⁾ 1862년 사행에 참여한 李恒億(1808~?)도 북경에 도착하여 대중목욕탕(沐浴炕)에 간 경험을 기술하고, 공부안 사관에서 서양 여인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러시아관에서 사진을 찍은 내용을 기록하였다.⁴⁰⁾ 이들 모두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저자는 북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생하게 기록하였다.⁴¹⁾

2. 탐문

생활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은 주로 탐문을 통해 그 영역이 더 넓혀진다.

- 35) 이점은 얼핏 보면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대에 북경에 사행으로 들어온 유구나 안남 등의 사신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윤정의 『서행록』(1844)의 기록과 같이 다른 사행에게는 허락지 않은 유람을 조선 사신에게 허락했다는 점은 유람이 조선사행만이 누렸던 특별한 기회였음을 말해준다. 명대에도 조선과 유구에만 특별히 유람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는 조선 사행에게 특별한 기회라 할 수 있다. 구도영, 「조선 전기 대명 사신의 북경 '관광' 탄생과 외교적 의미」, 『한국문화』 8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37~60쪽.
- 36) 예컨대 김창업도 썰매 타고, 귀 후비는 사람을 불러 귀를 파게 하면서 이를 자세히 기록한 바 있다.
- 37) 任百淵, 『鏡語遊燕日錄』, 『鏡語行卷』, 坤, 1837년 1월 1일(부유섭·최식 옮김, 『경오유연일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165~166쪽), 「元朝拜年禮, 比我國尤盛, 輿輪繡車, 塞路駢闐. 至所親家賀年, 輒留紅紙一銜. ……紙帖面書恭賀鴻禧, 下方書姓名, 後面詳註所居住, 某所第幾衛衙第幾家字, 皆印搨者. 凡所親者, 無時過訪, 亦必用名帖通之, 則主人必出門迎接例地. 歲朝逢人, 輒曰'好過年阿', 見所尊者, 伸兩手向後, 鞠躬致敬, 答者必聚手向上俯躬如揖者.”
- 38) 대개 이러한 곳은 역관이나 사상들이 드나들던 곳으로 연행록 저자들은 이에 대한 존재를 듣고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임백연은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기록하였다. 양한적에 관해서는 신익철, 「연행사와 養漢의 -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29~58쪽 참조.
- 39) 앞의 책, 166~167쪽; 186~187쪽; 190쪽; 224~227쪽. 임백연이 북경의 생활세계에 관심이 많은 까닭은 결국 화이론에 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는 원명원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화이론에 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이 책을 번역한 최식도 해제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앞의 책, 해제 18쪽 참조.
- 40) 이항익, 『연행일기』, 1862년 12월 27일; 1863년 1월 15일; 28~29일(이동환 역, 『국역 연행일기, 국립중앙도서관, 2008, 39쪽; 53쪽; 64~66쪽).
- 41) 이 책을 번역한 이동환의 해제(앞의 책, 4쪽)와 허방의 연구(「철종시대 연행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6, 226~237쪽)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피력한 바 있다.

오후에 서반 왕경문이 와서 약간 말을 주고받았다. 그 사는 곳을 물으니 원래는 대대로 강남인이라 하였다. 내가 웃으며 “북방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편안히 앉아서 용모를 치장할 뿐인데, 남방도 역시 그러합니까?” 하니, 왕가가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바느질과 요리는 모두 부인들의 일입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부인이 많은데, 잘 그린 춘궁화는 모두 부인의 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였다. 내가 “전족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하니, 왕가가 말을 들며 말하기를 “큰 것은 보기가 안 좋으나, 작고 네모난 것은 아주 좋지요.”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밤낮으로 퐁퐁 감아놓으면 필경 냄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왕가가 “뉘는 지 오래되었으면 때때로 씻고 말리며, 또 여기에 향가루를 뿌리니 냄새 또한 향기롭습니다.” 하며 껄껄 웃었다.⁴²⁾

徐有鑣(1768~1812)은 북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답을 나누었는데, 위 장면은 서반 왕경문과 대화를 나눈 대목으로 여인과 관련된 문답이다. 그가 강남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먼저 남방 여인도 북방 여인처럼 일하지 않고 치장하는 데 몰두하는지 물었다. 이에 왕가는 남방은 그렇지 않고 바느질과 주방의 일은 모두 여자가 하며, 나아가 그림도 여인들이 잘 그리며 풍속화인 춘화도 여인들이 더 잘 그린다고 묻지 않은 답까지 하였다. 풍속화에 관한 기록은 더러 보이지만 대개 중국의 풍속이 음란한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비판적으로 언급할 뿐, 그 유통구조와 창작 주체 등에 대한 문제는 잘 알지 못해 연행록에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곳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왕가의 답에서 북경에 유통되는 春畫의 주된 작가는 강남의 여인들임을 알 수 있다. 서유진은 또 전족에 관하여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으니, 왕가가 성적인 의미에서 그 효용성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다. 또 왕가는 냄새가 안 좋을 것이라는 서유진의 말에 때때로 씻고 말리며 향가루를 뿌리니 냄새도 좋다는 말로 웃어넘겼다. 이는 왕가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말로 보이는데,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 주고받기 어려운 은밀한 내용을 스스럼없이 말하였다. 전족의 내력을 묻고 그 부정적인 견해를 주로 논한 전대의 내용⁴³⁾에 비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전 연행록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풍습도 탐문을 통해 기록한다.

어제 관소에 들어온 후부터 앉아서 이야기할 때면 공중에서 수없이 방울을 흔드는 소리가 맹렬하게 들렸다. 무슨 소리인가 물으니, 성담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방울을 흔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나는 소리입니다.” 하였다. 내가 “비둘기에 어찌 방울이 달려 있는가?” 하니, 성담이 “이곳에서는 많은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며, 꼬리 끝에 손가락 마디 정도의 대나무 관을 다는데 옆에 구멍을 뚫어 바람이 통하게 하고, 종이로 혀를 만들어 원래의 구멍을 덮어서 혀가 바람에 움직이게 하니 매양 날 때면 옆의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 원래의 구멍을 덮고 있던 종이 혀를 날려 소리가 나서 방

42) 徐有鑣, 『種園遊燕錄』 地, 성균관대 존경각소장본, 49b쪽. 1802년 1월 7일, “午後, 序班王景文來過, 略與之語, 問其所住, 則答以原係江南人. 余笑曰: ‘北方佳人, 只安坐治容, 南方亦然否?’ 王曰: ‘否否, 縫衽烹餼皆婦人之職.’ 且曰: ‘婦人多工畫, 春宮畫佳者, 多出婦人之手.’ 余曰: ‘纏足竟是何意?’ 王舉其足而曰: ‘大的不好看, 小小的方是妙好.’ 余曰: ‘日夜纏得緊必定臭不好.’ 王曰: ‘纏久則時時洗得乾淨, 且鋪香屑所以臭亦香.’ 仍呵呵而笑.” 이해응은 『계산기정』, 「풍속」에서 이 대목을 읽고 인용하였다.

43) 『열하일기』, 「태학유관록」에서 곡정의 입을 빌려 이른바 三厄 가운데 하나인 전족에 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삼악에 관해서는 최석, 『熱河日記』와 法古創新的 實體—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343~385쪽 참조.

울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것이 무엇을 위한 방법이라고 물으니, 오흥주가 옆에서 말하기를 “청나라 초기에 벼슬아치 집안의 부녀자들이 사통을 많이 하여, 그 집 남편이 외출하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과 몰래 만날 때는 반드시 비둘기를 날려서 소리를 암호로 삼았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가 그 집 남편이 오는 것을 보면 비둘기를 풀어 그 소리를 내게 하여, 안에서 피했는데 그 후로 풍습이 되어 성안에서 비둘기를 많이 기릅니다.”고 하였다.⁴⁴⁾

북경에서는 비둘기에 호루라기와 유사한 기구를 달아서 날려 보내는 풍습인 이른바 ‘鳩哨’가 유행했는데,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를 들은 권시형(1811~?)은 영문을 몰라 물으니 비둘기에 단 방울이 내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고 부녀자들이 사통할 때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 풍습이 된 것임을 알게 된다.⁴⁵⁾

한편으로 북경에 체류하면서 변화의 기류와 새로운 사건 등을 예의주시하는 일은 시종 부단히 지속되었다. 주로 삼사신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들은 유람에 구애가 많아 숙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지만, 대신 탐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데 관심이 크다. 입관 후 17세기에는 역관이 취득한 정보 외에,⁴⁶⁾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통관이 된 조선인으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었다.⁴⁷⁾ 1746년 동지사의 부사 尹汲(1697~1770)은 밖에 나가기 위해 통관에게 허락받아야 하고, 유람지에서 뇌물을 주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등 여러 불편한 이유를 들며 한 발짝도 관 밖을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⁴⁸⁾ 대신 당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경과 중국의 상황을 예민하게 주시하였다.

듣자하니 淸皇이 천단에서 기곡제를 마치고 돌아온 뒤 안치해 두었던 황금빛 향로가 도난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값어치는 백금 1만 냥으로,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일로 기강이 해이해진 일단을 알 수 있다.⁴⁹⁾

44) 權時亨, 『石湍燕記』, 1850년 12월 24일(이철희 옮김, 『국역 석단연기』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180쪽), “自昨入館後, 坐語間, 猛聽得自空中有众多搖鈴聲. 問甚麼聲, 則性淡答道: ‘此非搖鈴聲, 卽鳩兒羣飛聲.’ 余道: ‘鳩何有鈴.’ 性淡道: ‘此處多家養酌鳩兒, 尾端輒係寸許竹管, 穿傍孔, 使通氣, 以紙作舌遮原孔, 令舌飄動, 每於飛時, 自傍孔風入, 則原孔遮的紙舌, 飄飄作聲如搖鈴.’ 余問: ‘此是甚麼法.’ 吳興周從傍道: ‘清初仕宦家婦女多私通, 乘其家人之出外, 潛問外人, 必以鳩飛聲爲暗號, 守門者, 見家人至, 則必放鳩作聲, 自內躲閃, 其後仍成風俗, 城中多養鳩兒云.”

45) 물론 기원에 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이전의 연행록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이재흡의 『부연일기』(1828) 소재 필기잡록에 짙막한 언급이 있으나 유래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李在洽, 『赴燕日記』, 風俗(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85,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150쪽), “或懸大撓鈴一箇, 步步鐸鳴, 鳩鴿皆有鈴, 衆鴿飛天, 如笙如嘯, 聲出空中.”; 禽畜(앞의 책, 193쪽), “鳩鴿亦餵料, 而家家養之, 有各色種子, 皆懸金鈴, 放鳩羣飛, 若簫嘯之聲, 出于雲天.”

46)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이원정, 『귀암집』 11, 『연행록』, 1660년 3월 12일(김영진·조영호 옮김, 『귀암 이원정 연행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127쪽), “역관 변중일이 한인에게 들으니, 명나라 황릉을 수리했다는 말은 과연 거짓이 아니었다. 소비한 내부의 은이 거의 100만 냥에 이르는데 神宗의 황릉만은 더 보수하지 않았으니, 신종이 금나라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 崇禎의 황릉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친히 제사 지내고 叩頭하였다.”

47) 앞의 이원정의 『연행후록』 등 17세기 후반까지 저술된 연행록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8) 윤급, 『연행일기』, 1747년 1월 16일(앞의 책, 144쪽), “正使書狀, 欲往天柱寺, 卽西洋人所在也. 要余同往, 辭以病. 一二處遊賞, 固無不可, 而出入之際, 必關由於提督通官, 得其諾而後始出門. 已甚可苦, 及到遊賞之所, 則又有守者, 必行面幣而後許入. 如是之際, 譯輩亦多所費, 尤不可不念. 且以沿路言之, 到處狗狎匪圍, 了無意趣, 若遊觀之所, 則必甚於沿路. 余則以不出館外一步爲定.”

49) 앞의 책, 1월 21일(앞의 책, 154쪽), “聞淸皇祈穀於天壇, 罷還之後, 所置黃金香爐有偷竊之事. 價直白金萬兩, 方大行搜捕而不

옥하관에 머물면서 천단의 향로가 도난당한 일을 듣고 윤급은 이 일이 청나라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일이라 보았다. 건륭 성세기란 점을 고려하면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여겨지나,⁵⁰⁾ 사건에 내재해 있는 미묘한 의미를 읽어내고자 하는 사행의 태도 역시 북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서유문도 삼사신의 체모에 구애되어 공식적인 행사 참여 외에 사적으로 북경을 유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반당 서유직 등이 유람 후 알려주는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데, 마치 직접 유람한 듯 생생하다. 그가 비록 직분에 구애되어 밖을 나가지는 않았으나, 북경을 관찰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의식은 확고하였다. 1765년 동지사의 서장관 李基敬(1756~1819)은 역관이 탐지해 오는 정보들은 모두 껍데기이고 알맹이가 없으나, 수역이 수집해온 당보에는 채택할 만한 것이 꽤 있다고 하였다.⁵¹⁾ 그러면서 이날 당보에서 얻은 이야기를 죽 나열하였다. 중국 각지의 농사 형편, 서쪽 변경의 사정, 황제의 정치 방향, 재정 상황 등의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재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저 중국의 국가 재정의 허실을 비록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길에서 얻어들은 말에 의하면 많들 말하기를 서쪽 변경의 군사비와 포상하는 자금으로 누만금을 지출하였다고 한다.……이뿐 아니다. 토목의 역사를 매년 그치지 않아 한번 지나갈 때마다 문득 행궁을 짓고, 곳곳에 불당을 증축하지 않음이 없다. 서원 안에 별궁 하나를 새로 짓는데, 이미 몇 해나 되었는데도 공사를 마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대단히 크고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그 규모가 극에 달했다. 그 밖에 번다한 치장과 자질구레한 것으로 사람들 이목에 뽐내려고 하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니, 국가재정이 고갈되는 것이 아마도 반드시 이러한 일에서 비롯된 듯하다.⁵²⁾

준가르를 정복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청의 국가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외 원명월과 같은 황실 원립 조성도 재정 고갈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삼사의 탐문은 청의 침예한 사안을 주로 살펴 정국의 동향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강기슭을 따라 상하로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유랑민의 모습처럼 보였다. 대개 남쪽 지방에 여

得云。紀綱之解弛，可見其一端也。”

50)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판단에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즉 사건에 대한 의미 판단이 정확하려면 선입견을 배제하고, 유사한 징조를 보이는 사건자료들이 축적되거나, 해당 사건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전말을 이해해야 한다. 윤급은 북경에 처음 들어갔지만, 사전에 중국을 다녀온 이를 통해 혹은 전대 연행록이나 다른 기록을 통해 선행 지식과 견문을 얻었을 것이며 대략은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도난 사건을 들었을 때 이것이 청의 기강이 해이해진 하나의 증거라고 판단했다고 보인다. 다만 삼사신의 판단은 조선의 대청인식의 방향을 결정할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51) 李基敬, 『飲水行程歷』, 1766년 2월 3일, 林基中 篇, 『燕行錄續集』 116, 삼서원, 2008, 292~293쪽(이영춘 외 옮김, 『1756년의 북경 이야기 - 음빙행정력 역주』, 교육과학사, 2016, 203~204쪽), “譯說輩探得事情者, 率皆皮膜。蓋自皇朝宣洩筵說爲死罪, 而清國法網尤密。……首譯得納塘報, 其中頗有可採者。”

52) 앞의 책, 1756년 2월 3일, 296~297쪽(이영춘 외 옮김, 앞의 책, 207쪽), “彼中國用虛實, 雖未可的知, 而得於道路之言, 多云西邊軍需及賞資至費累巨萬。……不特此也, 土木之役, 連年不息, 一番經過, 輒作行宮, 處處佛宇, 無不增修。西苑內創一別宮, 已至數歲, 而迄功尙遠, 宏大奢麗窮極基制。其他繁文重飾之誇耀人目者, 遂歲增加國用之耗竭, 必由此等事也。”

러 비적들이 있고, 또 근래 천진의 서양군대들이 100리 안에서 한창 날뛰고 있으니, 남쪽 지방 백성과 연해의 여러 지역 백성들 가운데 난리를 피해 고향을 떠난 이들이 대부분 수로를 따라와 여기에 모인다고 한다.……여자들이 주방 아궁이 곁에 물러나 앉아 있었다. 그 가운데 나이가 50세나 60세가량 되어 보이는 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본래 남경 사람으로 일찍이 9년 전에 다섯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근래 남쪽 변경이 소란스러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한 나이가 어린 선공이 차를 내와 올리기에, 그와 더불어 필답하였다. “저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처고입니다. 이 배의 이름이 만강홍입니다. 오래도록 이곳에 체류하며 돌아가지 못하고서 집으로 삼아 떠돌며 살아가고 있으니 생계가 막막합니다.”라고 하였다.⁵³⁾

1860년 성절진하검사은사의 부사 朴齊寅(1818~1884)은 북경에 도착하기 직전 통주에서 위와 같은 견문을 남겼다. 연행록에서 통주에 대한 견문은 대부분 조운을 위해 올라온 남방의 배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장면과 통주성의 변화함 등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이다.⁵⁴⁾ 이에 더하여 배에 올라 자세히 관찰하는 기록들이 많은데, 박제인도 통주에 도착하여 배에 올라가 배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결과 남쪽에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 통행할 수 없어 통주에 묶인 사람과, 천진에 주둔하는 영불연합군을 피해 통주에 모여드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기실 박제인이 사행에서 부여받은 소임도 바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청국의 정세를 탐문하는 것이라 이러한 기록이 많다.

IV. 마무리

이상에서 조선 후기 일기 양식으로 기록된 연행록을 통해 북경학이 성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연행록에서 주된 양식이라 할 수 있는 일기는 일정이 대체로 비슷하여 노정과 체류 기간이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일기는 시대 상황, 저자의 목적의식, 인식방법과 태도 등에 따라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띤다. 특히 저자가 북경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북경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수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北京 概述은 저마다 북경에 대한 지식수준과 북경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어, 북경을 學知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대로 갈수록 북경을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그 과정에서 유람, 탐문, 전적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구사되었다. 이 점에 근거할 때 일기체 연행록은 북경학의 시각과 방법을 잘 보여주는 북경학의 보고서라고 이를 만하다.

53) 朴齊寅, 『燕槎錄』 「燕行日記」 卷之一, 1860년 5월 22일(이규필 옮김, 『국역 박제인 연행일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1, 150~151쪽), “沿江上下, 多來往之人, 有若流民之狀, 蓋南有諸匪, 且近有天津洋匪, 方創擄於百里之內, 南民及沿海諸民之逃難者, 多從水路而來聚於此云.……女子屏坐於厨籠之傍, 其中一女子, 年可五六十歲, 自言本以南京人, 曾於九年前, 擄子女五人, 來泊於此, 近因南邊之擾攘, 不得回去云. 又有一年少船工, 進茶與之筆話. 自言姓李名處高, 船名滿江紅, 久滯未歸, 浮家資活生計澹然云.”

54) 연행록에 기록된 통주에 대해서는 이승수,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근접, 그 흥분과 기대」와 「연경 입성, 조양문의 어제와 오늘」, 『600년 문명의 통로, 연행로를 걷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2, 331~411쪽 참조.

기나긴 기간 동안 조선 사행의 북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명암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뿌리 깊은 반청적 태도에 의해 북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선 후기 내내 공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일각에서 북경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북경을 통해 세계를 만나기도 하며, 급기야 조선의 개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북학은 북경학의 매우 특별한 성취라 할 수 있다. 또 초청관계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에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조선과 청이 병자호란 등의 영향으로 원한에 사무친 감정이 많이 희석되고,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언급까지 확인할 수 있다.⁵⁵⁾ 이는 조선의 청에 대한 인식이 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입관 후 17세기 말까지 사행이 마음대로 유람하기 힘들었으나, 200년 뒤 한 집안처럼 북경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교분을 맺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물론 청이 조선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북경을 이해하고 알고자 하였던 조선 사행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조선 사행이 同文을 바탕으로 문장과 학문 등 다방면에서 해박한 소양을 드러내자, 중국 식자들이 조선 사신을 만나 붓을 놀리며 고담준론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조선이 사행을 통해 중국과 북경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진적 활용의 다양한 양상에 대하여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살필 것이다. 나아가 북경 고문헌과 북경을 기록한 연행록을 전면 비교하고자 한다. 또 연행록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의론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잘 알려진 장관론, 일등인론, 지정학론, 풍속론, 황제론 등은 연행록을 통해서 생산된 논쟁적 담론이다. 연행록을 통해 다양한 논제에 대하여 주장과 반론을 제기하며 상호 토론을 지속하였다. 기실 이점이 북경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추후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55) 尹程, 『西行錄』, 1845년 1월 10일(임영길 옮김, 『서행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187쪽), “蓋外藩人之赴京者, 皆不許任其所之, 而至於我東人, 則自譯官至馬頭·私商輩近數百人, 遍行城內外. 馬頭輩則或爲賣蔘, 納交於士夫家, 其中慣熟者, 或知如干土產, 往謁所親某某宅, 甚者或問候內廷, 其欣款無異出家奴之還歸. 及其發行也, 又往告歸, 則其內外俱有如干贖物, 必饋餽云. 今以吾僂言之, 交結朝士, 竟日會穩, 有如是焉, 可謂中外一家也.”

〈참고문헌〉

- 강호보, 『상봉록』, 『연행록선집 보유편』 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강호흔 역, 『1727년 사양재 강호보의 상봉록』, 보고사, 2020).
- 權時亨, 이철희 옮김, 『국역 석단연기』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 金景善, 『燕轅直指』, 한국고전번역원DB.
- 金善民, 박은정·이홍식 옮김, 『觀燕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 金直淵, 신익철 옮김, 『燕槎日錄』, 의왕향토사료관, 2011.
-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한국고전번역원DB.
- 盧以漸, 김동석 옮김, 『隨槎錄』, 성균관대출판부, 2015.
- 朴思浩, 『燕薊紀程』, 한국고전번역원DB.
- 朴齊寅, 『燕槎錄』(이규필 옮김, 『국역 박제인 연행일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1)
- 박지원,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1, 돌베개, 2017.
- 서유문, 조규익 외 주해, 『무오연행록』, 박이정, 2002.
- 徐有鎭, 『種園遊燕錄』,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
- 成以性, 『溪西先生逸稿』卷之一, 『燕行日記』, 한국고전번역원DB.
- 尹 汲, 『燕行日記』, 임기중·부마진 편, 『연행록전집일본소장편』 1,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2001(신로사 옮김, 『윤급연행일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 尹 程, 임영길 옮김, 『西行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20.
- 李基敬, 『飲水行程歷』, 林基中 篇, 『燕行錄續集』 116, 상서원, 2008(이영춘 외 옮김, 『음빙행정력』, 교육과학사, 2016).
- 李器之, 조용희·신익철·부유섭 옮김, 『菴燕記』 원문·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李元鼎, 김영진·조영호 옮김, 『귀암이원정연행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 李義鳳, 박동욱·김영죽 옮김, 『북원록』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 李在洽, 『赴燕日記』(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85,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李恒億, 이동환 역, 『국역 연행일기』, 국립중앙도서관, 2008.
- 李海應, 『薊山紀程』, 한국고전번역원DB.
- 麟坪大君, 『燕途紀行』, 한국고전번역원DB.
- 任百淵, 부유섭·최식 옮김, 『鏡悟遊燕日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韓弼教, 김현미·조창록 옮김, 『수사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洪大容, 정훈식 옮김, 『주해 을병연행록』 1, 경진출판, 2020.
- 구도영, 「조선 전기 대명 사신의 북경 '관광'탄생과 외교적 의미」, 『한국문화』 8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 구도영, 「조선전기 대명 사신의 북경 관광지와 관광 사회」, 『역사학보』 244, 역사학회, 2019.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사행의 정치외교적 의미 - 인평대군의 사행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42, 온지학회, 2015.
- 김동진, 「이기지의 일암연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07.
- 김영죽, 「연행 體驗 기록의 慣行과 그 매커니즘」, 『한문고전연구』 3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7.
- 김태준, 「연행록의 교과서 노가재연행일기」, 『국제한국학연구』 1,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2003.
- 신로사, 「金善臣의 生涯와 그의 著作에 관한 一考」,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신익철, 「연행사와 養漢의 -역관·사상이 접한 중국의 창루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 원재연, 「17~19세기 연행사의 활동공간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2009.
- 劉勇强, 「연행록과 중국학 연구」, 『한국문학연구』 2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 이승수, 『600년 문명의 통로, 연행로를 걷다』,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2.
- 이호윤, 「18세기 조선의 창조인식 - 『노가재연행일기』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동아대 석당학술연구원, 2018.
- 임영길, 「18~19세기 조선 문인들의 北京 인식과 기록 양상 - 탐방 공간의 확장과 관련하여 -」, 『동양한문학연구』 54, 동양한문학회, 2019.
- 정해중,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北京見聞 - 김창업의 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명칭사연구』 23, 명칭사학회, 2005.
- 진재교, 「燕行錄과 知識·情報 - 지식·정보의 수집과 기록방식」, 『대동문화연구』 9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최소자, 「18세기 후반 연행록을 통해 본 조선지식인들의 대중국인식」, 『국사관논총』 76,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최 식, 「텍스트로 바라본 燕行과 燕行錄 - 燕行的 體驗과 享有」, 『대동문화연구』 8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4.
- 최 식, 「연행 지식·정보의 수집·정리 및 확대·재생산 - 연행록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2018.
- 최 식, 「『熱河日記』와 古創新的의 實體 - 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 허 방, 「철종시대 연행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6.

* 이 논문은 2024년 5월 30일에 투고되어,
2024년 6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4년 7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A Study of the Late Joseon Yeonhaengrok from the Perspective of Peking Studies II**
- Focusing on the Yeonhaengrok recorded in diary form -

Jeong, Hunsi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Peking Studies through the Yeonhaengrok of the late Joseon Dynasty recorded in diary form. The diar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ain form of Yeonhaengr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a generally similar schedule, and the journey and period of stay are largely the same. Nevertheless, diaries take on a variety of aspec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he author's sense of purpose, cognitive methods and attitudes, etc.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author expands his knowledge of Beijing and includes the process of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Beijing. The accounts of Beijing that can be found in many diaries reveal each person's level of knowledge and perspective on Beijing, showing that they regard Beijing as an object of study. As later generations passed, the movement to learn about Beijing became more active, and in the process, various methods such as sightseeing, inquiry, and use of historical records were explored. Based on this point, it can be said that Ilgi Yeonhaengrok is a report on Peking Studies that clearly shows the perspective and methods of Peking Studies.

[Keywords] Yeonhaengrok, diary, Beijing, Peking Studies, sightseeing, inquiry

* Research Professor,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Ulsan